



# 전북도, 장애인 건강검진 개선 공모 2개 기관 선정

전북대병원·남원노인요양병원  
복지부 시설장비 지원 공모 선정  
검진 편의시설·전용장비 확충  
휠체어 체중계 등 특화 장비 구축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장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북대학교병원과 남원노인요양병원 2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해당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법적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두 기관에는 지정 기준 충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가 지원된다. 기관별 지원 규모는 총 1억 6,75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 연도에 걸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검진을 시작한 뒤에는 중증장애인 검진에 따른 가산수기도 별도로 지원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지원 예산은 검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 전용 장비 마련에 쓰인다. 주요 구축 항목으로는 ▲휠체어 체중계 ▲영상확대비디오 ▲점자프린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장애특화 신장계 ▲이동형 침대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장비가 포함된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검진 동선 확보와 편의시설 보완, 수어통역 제공 등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해 장애인 친화적 검진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공모에 참여했으며, 6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실사 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두 기관에 대한 예산 교부와 사업 시행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검진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공공의료 기반도 탄탄해져,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장애인이 검진 과정에서 겪는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정청래대표 페이스북>

## 정청래, 당 대표직 전격 사퇴...연임 도전

"민심당심 보고 내 길 가겠다"  
친명 정채성 앞세워 지지 호소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며 친명계의 반발을 애둘러 꼬집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정대표 대표는 "당대표 출마"와 관련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 심판을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이 대통령 지킴이를 자초했다.

또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몸공동체로 이 대

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거듭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개월간의 대표직 성과에 대해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울려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정치 인생을 살피겠다"면서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앞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이겼고,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는 2006년,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이 대통령 지킴이를 자초했다.

한편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군산 '짬뽕라면' 고향사랑기부 신규 답례품 채택

선정위원회 열고 답례품 추가  
기부자 선택 폭 확대  
기존 공급업체 재심의 완료

전북도는 지난 23일 제15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공급업체 1개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답례품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을 재해석한 '짬뽕라면'을 신규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 기존 제4차 답례품 목록 가운데 기부자 만족도가 높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볶음 서리태콩, 천연꿀, 육포, 무염 생정국장, 식혜·수정과세트 등에 대한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신청한 5개 업체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답례품 주문 비중은 농축수산물 58%, 가공식품 26%, 전통주 9%, 공예·공산품 5%, 관광·체험·유가증권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약 2,7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과 개인 농가가 공급업체로 참여하면서 기부금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



<사진=전북도>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을 담은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답례품 품질관리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취임 전부터 국가예산·현안 직접 챙긴다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27년 국가예산 공동 대응 논의  
타운홀 미팅 후속사업 지원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핵심 도정 현안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

정동영·김의겸·박지원·이춘석·한병도·박희승·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됐다.

국가예산 사업 반영 여부가 사실상 기획처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초기 심의 단계부터 국회의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됐다.

협의회에서는 2027년도 국가예산 중점 건의사업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진=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

참석자들은 전북의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국가예산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확인된 현안 수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민선 9기 핵심공약의 국가예산 사업화를 중심으로 주

요 사업을 제시했다.

타운홀 미팅 관련 핵심사업으로는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

현대차 투자협약과 연계한 전략사업으로는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 △온디맨드 제조 특화 AX 인재육성 허브 조성 △중대형 상용차 전동화 전환 지원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으로는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세계유산기록관 건립 △새

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윤준병 위원장은 "전북의 주요 현안은 전북 전체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 돼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당선인은 "2027년도 국가예산은 민선 9기 공약을 실제 사업과 재원으로 연결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폐지

## 전북도 추진 299억 규모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기속

전주시가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해 토지 활용성을 높인다. 전주시는 24일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입지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 만성지구 일대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주요 내용은 만성지구 기존 3000㎡ 이하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는 먼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내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만성지구 문화콘텐츠 산업 집적화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전북도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의 주변 인프라 연계로 이어지며 전북 K-콘텐츠 산업 거점 도약 계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해 시는 내달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해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어린이 전라감영 역사문화 창작대회

## '맞추랑께 그리랑께' 참가자 모집 어린이 역사 상상력 일깨워

'2026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 어린이 역사문화 창작대회 '맞추랑께 그리랑께'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이번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은 시민 직접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은 △맞추랑께 그리랑께(백일장·사생대회) △모이랑께 가보장께(전주화약 시민참여



재현) △부르랑께 취보랑께(시민 장기자랑) △담그랑께 나누랑께(시민 김장나눔 행사) 등 연 4회 '전라감영의 날'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행사 '맞추랑께 그리랑께(백일장·사생대회)'는 어린이들이 전라감영 역사와 인물 등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창작 활동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백일장과 사생대회 참가자를 각각 100명씩 선착순 모집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공작소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전주화약 체결을 시민이 직접 재현하는 '모이랑께 가보장께'와 시민 장기자랑 프로그램인 '부르랑께 취보랑께'를 준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전통 김장문화 나눔 가치 실천 '담그랑께 나누랑께'를 운영하는 등등의 전라감영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경찰 우회전 단속 "우회전 교통사고 19.4% 감소"

## 집중 단속 기간 사망사고 'ZERO'

전북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통해 사망사고 'ZERO' 등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우회전 교통사고 19.4%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총 54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수는 68명으로 전년(80명)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단속기간 중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15건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4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자체 제작한 우회전 홍보영상(영상 연결 QR삽입)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TV방송 출연, 대형 전광판, 플래카드(57개소)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운수배달업체와 전세버스 업체를 직접 방문해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단속 기간 중 우회전 교통사고 19.4% 감소"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일시정지 제도가 완벽한 운전 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 도민이 안심하고 길을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다짐'

## 공직사회 존중·평등 조직문화 확산

전주시 "차별과 혐오 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위한 '2026년 상반기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24일 실시됐다.

교육은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가 강사로 나서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 주제 강의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 작가는 특강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공

직자 역할과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 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교육에는 시청 직원 350여명 참여했으며 시는 이어 하반기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 친화 조

문화를 공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차별과 혐오 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위한 공직사회 존중과 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완산도서관 전북 여류구상작가 12인 작품 전시

## 여성 작가 '연대의 힘' 시각화

전주시 완산도서관 '전북 여류구상작가 12인' 대관 전시가 2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전북 현대미술 내 여성 작가들의 △일상의 조각 △감정의 결 △기억의 파편들을 각자의 따뜻한 색채로 풀어낸 시각예술 작품 70점이 완산도서관 1층 완산마루 전시실에 오른다.



특히 전시를 통해 그간 여성 작가들의 '연대의 힘'을 시각화한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완산도서관은 오는 7월 4일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우리들의 작은 전시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완산도서관 여류구상작가 전시는 올해를 맞아 35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우수 구급대원 3인 선정

## '119HERO 구급대' 표창 수여

전주완산소방서는 24일 '2026년 상반기 119HERO 구급대'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119HERO 구급대' 표창은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 향상에 기여한 구급대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완산소방서 '119HERO 구급대' 운영은 시민 생명지킴이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들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영웅(HERO) 우수 구급대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현장 구급대원 사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제도로.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포상에서 자격 제한 없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진행



전주완산소방서는 24일 '2026년 상반기 119HERO 구급대'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주완산소방서>

했다. 특히 전주완산소방서는 주요 평가항목으로 △현장 의료지도 △정맥요 확보 △전문약물 투여 △기관 삽관 △자발순환 회복(ROSC) 등 전문 응급처치 수행 실적을 점수화한 정량평가를 통해 반기별 고득점자 3명을 선정했다. 이로서 2026년 상반기 '119HERO 구급대원'에는 효자119안전센터 소속 신진태 응급소방장(응급구조사 1급) △강성용 소방사(간호사) △이정은 소방사(간호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이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수행해 환자 자발순환 회복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소민 기자

# 결혼이주민 가담 자금세탁조직 검거

## 베트남 결혼 이주민 85억 상당 범죄수익 세탁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보이스포싱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뒤,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총 2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적용법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5년 ↓징역, 3,000만원 ↓벌금 검거된 피의자들은 2024년 9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피싱, 리딩 사기 등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받은 뒤, 이를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905회에 걸쳐 모두 8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민,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베트남 결혼이주민 등

을 직접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다른 공범을 포섭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송치했다. 관련해 경찰은 당부사항으로 국외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줄 테니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된다. 설령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보내주면 안되고, 이와 유사한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112)에 문의하길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뒷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범죄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새만금청-관세청 '맞손'...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

##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 관세 행정지원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지원하고 새만금이 대한민국 '지방수도성장'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세청(청장 이재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성요 청장은 2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종욱 관세청장과 만나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새만금-전북 대역신 테스크 포스(TF) 종합지원계획'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의 신속한 확대 지정과 관세 분야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새만금에 제2, 제3의 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의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세계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8.1㎢, 245만평)는 지난해 2월 종합보세

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관세 등 세금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보관·가공·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출 시에는 관세 면제 혜택, 국내 반출 시에는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과 관세청은 새만금지역에 더욱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첨단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세행정 지원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새만금 국가산단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담팀을 내년 초에 신설하고, '관세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만금 입주 희망 기업이 종합보세구역 혜택과 통관 절차를 안내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암생존자 관리 전문교육 실시

전북대병원이 암생존자 관리 강화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열린 이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로 관리자 암생존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사회 보건의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국내 남성 암 발생률 상위를 차지하며 생존율 증가에 따라 환자 후 삶의 질 관리가 강조되는 '전립선암'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립선암 생존자들의 요실금, 성기능 장애, 만성 피로 등 신체적 후유증 관리와 보건의로 관리자들의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은 비뇨의학과 박승철 교수의 △전립선암의 진단 △최신 치료 경향 및 주요 부작용 관리 표준 가이드가 제시됐다. 이어 소수우 물리치료사 △전립선

암 치료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실금 완화 및 신체 기능 회복 위한 골반저근 운동 기법과 맞춤형 재활 운동 실습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한 도내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 실무자들은 실제적인 암생존자 사업 연계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공공보건의로 전반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다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암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계 협력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시센터는 암 치료 완료한 생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돕는 맞춤형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개발공사, 과학기술연구원과 전력공급 협력

## ‘재생에너지 전가공급 사업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전북개발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3일 ‘재생에너지 전가공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개발공사가 그동안의 실증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PPA 모델을 도내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 개요를 보면 전북개발공사 KIST 전북분원 건축물 옥상에 6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25년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에 한전 전력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확보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계통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호남권 계통 포화 문제를 On-site 직접거래로 우회

하면서도 수요처에게는 요금 절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동시에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말했다.

KIST 전북분원장은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상생하는 연구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NH농협 전주시지부와 전주원예농협 24일 전주시 관내 배 농가의 인력부족 해소 및 농촌환경 개선 위한 농심전심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 NH농협 전주시지부-전주원예농협, 일손돕기

### 배 봉지 씌우기 및 농약병 회수 작업... 영농지원 총력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김대호)와 전주원예농협(조합장 임종경)은 24일 전주시 관내 배 농가의 인력부족 해소 및 농촌환경 개선 위한 농심전심(農心天心)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특히 두 농협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농폐자재와 방치된 폐농약병을 수거하는 회수 작업 지원도 함께 전개했다.

이날 전주시지부와 전주원예농협 임직원들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배 봉지 씌우기 작업에 모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임종경 전주원예농협조합장은

“전주원예농협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지원과 함께 깨끗한 농촌가꾸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NH농협 전주시지부장은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일손돕기와 농촌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영농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실의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H농협 전주시지부와 전주원예농협은 시기별 작물별 맞춤형 영농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농가 실의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레전드 50+’ 지원사업 2차 모집 시작

## 내달 2일까지 신청 총 1억5110만원 지원

전북TP는 지역주력산업육성 위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북도 핵심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을 대상으

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을 지원하는 1.0 프로젝트 △농생명·바이오 및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을 지원하는 2.0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 프로젝트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 1억5110만원 규모로 약 4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기술지원은 최대 3500만원, 사업화지원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패키지로 신청할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문 및 제출서류는 RMS 기

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MS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지역산업생태계 고도화와 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기안전공사, 육군본부 전기안전 강화 ‘상생협력’

## 계측장비 572대 기증 컨설팅·안전진단·교육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4일 호국보훈의 달 육군본부에 계측장비 572대를 기증하며 군 전기설비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사에는 공사 사업운영처 표정재 처장과 육군본부 전장영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증 장비의 현황과 활용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군 전기안전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증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 계측장비를 정비·재조립해 재생한 후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공사의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실천과 군 전기안전 인프라 강화

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디지털다기능계측기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누설전류계 등 총 5종 572대의 장비는 군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단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부대 5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기술 컨설팅·안전진단을 병행해 군 전기설비의 안전성 제고와 전기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 전문역량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 전기안전 수준 향상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군 전기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술교육과 안전진단을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확산·고도화

## 현장 적용 결과 사료비 절감·생산성 향상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4일 현장에서 검증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확산과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는 농가가 확보한 곡류, 풀사료와 농식품부산물 등을 활용해 직접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농가 여건에 맞춰 사료 원료를 선택하고 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맥주박, 비지, 갯묵, 두유박, 버섯사용후배지 등 총 47종의 농식품부산물에 대한 사료가치 평가를 완료했으며, 관련 정보를 ‘한국표준사료성분표’와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또 농가가 사육 규모와 원료 여건에 맞춰 적정 배합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기술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우 비육우의 섬유질배합사료(TMR) 급여 비율도 2004년 2.14%에서 2024년 32.28%로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연구 성과를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활용성을 높여 왔다.

2018년에는 개량된 한우의 성장 특성에 맞춰 거세 한우 단기 비육 프로그램을 반영했다.

또 2024년에는 임신우 사료 증량 급

여 기술을 추가해 후대의 근내지방도는 6.7에서 7.6으로 향상되고, 투플러스(1++) 등급 출현율은 36.4%에서 85.7%로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 마리당 순이익도 8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임신기 어미소의 영양 관리가 송아지의 성장과 육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번식우 관리와 고급육 생산을 연계한 새로운 사양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의 현장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군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하월령은 30.9개월에서 28.5개월로 단축됐고, 사료비는 11.3% 절감됐다.

/정소민 기자

육질 원플러스(1+) 등급 이상 출현율은 65.6%에서 72.4%로 높아졌으며, 농가 소득은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기술 전수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거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가별 사육 규모와 경영 여건에 맞는 정밀 사양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북 중장년·1인 창업기업 수출 첫 걸음 지원

### 글로벌 판로 토크 수출 교육 1:1 상담회 개최

전북경진원이 운영중인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익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함께 ‘글로벌 판로 토크(Talk-Talk) 수출 교육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판로 토크(Talk-Talk) 수출 교육 오는 29일 오후 2시 전북소상공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판로 토크(Talk-Talk) 교육은 초기 창업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의 첫 걸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북FTA통상진흥센터와 협업해 △수출 절차 및 거래조건 △인증·규제 △ FTA 협정별 관세율 등

초기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는 행사 고지와 동시에 20여개 기업 등이 1:1 상담을 신청해 오며 높은 관심이 따르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장년 창업기업이 수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첫걸음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판로 토크(Talk-Talk) 교육 참여를 희망하거나 수출관련해 1:1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LX전북지역본부>

## 박춘수 LX전북지역본부장·임직원 상생가치 실현

### 지역복지관 배식봉사 참여 사회공헌활동 이어져

박춘수 LX전북지역본부장 지역노인복지관 배식봉사활동에 지역민들의 칭찬이 복지관의 따뜻한 온기로 번지고 있다.

24일 박춘수 LX전북지역본부장은 덕진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박 본부장 및 임직원들은 복지관 어르신들의 밥과 반찬을 배식하며 식탁 정리 등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배식과

퇴식을 손수 도우며 LX만의 사회공헌 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봉사 활동 후 박 본부장은 식사를 끝낸 지역 어르신들을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기원과 행복 더한 웃음을 선사했다.

박춘수 LX전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꾸준히 연대하며 상생의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X전북지역본부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덕진노인복지관에서 매월 식탁정리 등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관원 ‘바퀴 달린 홍보관’ 추진 적극행정 도입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촌 지역 대중교통 통한 ‘바퀴 달린 홍보관’ 버스 랩핑 광고를 추진한다.

이번 전북농관원의 광고 추진은 기존 온라인 중심 홍보나 리플렛 배포 방식이 고령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형 소도시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적극행정’ 도입에 중점을 뒀다. 따라서 전북농관원은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시내버스를 움직이는 홍보 플랫폼으로 변모시켰다.

홍보 버스는 △진안 △무주 △정수 등 도내 7개 시군내에서 농업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농협 등을 경유하는 핵심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 운행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산간 오지 지역까지 촘촘한 홍보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혜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 전북농관원 홍보는 오는 2027년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는 ‘기본형 공익직불 이행점검 기간(7-9월)’에 앞서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사전 홍보 형태로 집중 전개된다.

전북농관원은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6가지 필수 준수사항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독려해 ‘몰라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피해’

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버스 외벽에 인터랙티브 검색창 ‘농업e지’ 검색 유도 문구를 포함해 유용한 농업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북농관원 한준형 지원장은 “이번 버스 랩핑 광고를 시작으로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소통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국철인3종선수권대회’ 익산서 열려

25~28일 전국서 1,000여 명 참여 “감동과 활력 기대”

익산에서 전국 철인들의 뜨거운 도전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옹포면 익산국제철인3종경기장에서 제26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철인3종 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철인3종협회가 주관한다. 초·중·고등부와 U23, 엘리트부, 동호인부 선수 및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25일 공식 수영 연습을 시작으로 △26일 엘리트·U23 경기 △27일 초·중·고등부 경기 △28일 동호인부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동호인부 사이클 경기가 열리는 28일 오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옹포골프장입구~옹포삼거리~칠목재휴게소~임점리고분전시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해당 시간대 통행이 어려운 만큼 옹포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익산을 찾은 선수들의



열정적인 도전이 지역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 도내 10개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상생 협약

전략산업 연계 브랜드 단과대 및 AI거점 공동구축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10개 대학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통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대 등 10개 대학은 24일 오전 전

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역량을 연계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를 포함해 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육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 도내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대학들은 전북의 권역별 전략산업인 ‘5극 3특’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대학30 및 RISE사업의 성과를 연계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춘 AI 융합 교육과 현장 실습 중심의 공유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연구 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취·창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넘어 긴밀한 인프라 공유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고창군 ‘전통예술놀이 한마당’ 선봬

제)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이 공예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 ‘고창 전통예술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6~28일 고창읍성 및 고창군 전통예술 체험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큰 호평을 받았던 공예주간 행사인 ‘일상공예, 일상공예의 성공을 잇는 후속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전주문화재단과의 유기

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행사로는 △천연염색, 자수, 도예 등 고창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예체험’ △다채로운 공연 및 전통놀이 등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전국 공예 작가들의 정성과 장인정신이 담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예마켓’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는 고창이 가진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는 일상 속 쉽고 전통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장이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성황’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이 전국 미술인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대전은 지난 40년간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며 한국 미술계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해 온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 다. 이번 대회에는 공예, 캘리그래피, 회화 등 6개 부문에서 총 486점의 작품이 출품돼 뜨거운 창작 열기를 입증했다.

이번 출품작들은 전통 예술의 깊이와 현대 미술의 신선한 실험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층 높아진 미술계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심사 결과 종합대상은 이미지 작가의 공예작품 ‘역동적 파도의 시간’이 선정됐으며, 부문대상은 서양화 부문 김희욱 작가의 ‘해석된 꽃의 정원 1’과 캘리그래피 부문 한광수 작가의 ‘중고개’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 11점, 특별상 16점, 장려상 16점 등 총 46명의 수상자가 선정

돼 미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취를 널리 알리게 됐다. 대전을 준비한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4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전국춘향미술대전에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전국 작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전이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 8월 3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의 2026년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우수성을 갖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해, 관광객에게 전북을 홍보하고 지역의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8개의 상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각 200만 원의 생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관 임점 및 상품 홍보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판매 지원, 약 한 달간의 2026 선정 상품 기획 전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0일간 이뤄지며, 접수는 내달 3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사흘간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서류와 실물 작품을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관광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전주시 ‘어린이 역사 창작대회’ 개최

27일 전라감영서

조선시대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이 초등학생들의 역사 창작 무대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 전라감영 일원에서 어린이 역사문화 창작대회인 ‘맞추랑계 그리랑계’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라감영을 단순한 시각적 관람 시설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한 ‘2026 전라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연간 행사다. 대회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두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선화당 앞에서 짧은 역사 단막극을 관람하고 해설을 듣는다. 이후 전라감영의 역할과 관찰사, 판관 등 조선시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별도의 주제를 부여받아 창작 활동을 진행한다. 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사생대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부대 행사로 OX 퀴즈도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백일장과 사생대회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5일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공작소 온라인 접속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제출된 완성작을 당일 현장에서 심사해 부문별 우수작을 선발한다. 장원(1등)에게는 아이패드, 방원(2등)과 탐화(3등)에게는 각각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의 ‘전라감영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10월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전주화약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행사와 장기자랑 대회를 열고, 11월에는 전통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사진=완주군>

# 완주군청 근대5종팀, 전국대회 메달 수확

개인·단체전 활약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와 동시에 완주군청 소속 이정향 선수가 개인 종목 은메달을 추가했으며, 계주 종목에서도 완주군청 소속 김우철 선수가 전북 소속 형태극 선수가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성택 근대5종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한 결과를 좋은 성적으로 거둘 수 있어서 보람차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훈련에 매진해 완주군민에게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단이 전남 해남군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며 완주군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 시도대항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모여 활약을 펼친 가운데, 완주군청 소속 이화영·최인리·김예나 선수는 근대5종 계주 종목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하기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  
헤파하고 가벼운옷 입기

###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더운시간대 휴식하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익산시, 펀드 운용사와 지역 기업 투자 활성화 모색

익산시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익산시 참여 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가 출자·참여하고 있는 주요 벤처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전북 혁신 푸드테크 벤처펀드 △전북 창업초기 주력산업분야 벤처펀드의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펀드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익산시는 청년창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 분야 기업들이 민간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연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2026 예술누림' 선정 국비 1400만원 확보

정읍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예술누림'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융합미술과 실용음악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누림'은 더 많은 시민이 예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예술가가 직접 교육 과정을 제안하면 운영 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한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력과 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다채로운 배움터를 마련했다.

먼저 '창의융합미술교실'이 지난 19일 첫 수업을 열었다.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총 40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어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그루브 스타트' 과정이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2주에 걸쳐 총 4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술누림 사업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쉽고 즐겁게 접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이 자라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 선제 대응... 빗물받이 정비

익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빗물받이 정비에 나서며 침수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4일 '익산시 자율방재단(단장 정영미)'이 지역 곳곳에서 대대적인 빗물받이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변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담배꽂초, 낙엽 등 각종 쓰레기를 제거하고 원활한 배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원들은 침수 취약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익산시도 전문업체와 자체 정비 인력을 활용해 침수 취약지역과 상습 막힘 구간의 빗물받이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빗물받이와 배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시민 권익·안전 보장 최선 2(題)

### 종합민원상담실 연중 운영

법률·세무·회계 등 5개 분야 무료 상담

군산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지는 민원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민원상담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분야별 상담 시간은 다음과 같다.

△법률 :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5시~6시 △법무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5시 △건축법률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소소비자고발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5시 △세무·회계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5시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전문 지식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종합민원상담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폭력 없는 안전도시 조성

#### 예방·대응 협력체계

군산시가 24일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최근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양상과 피해 유형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 예방에서 요소를 공유하고, 예방에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026년 시행계획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내실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4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2차 연도 본격 추진

보석의 도시 익산이 주얼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 산업의 기술력과 산업·교육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과제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패션산업 시험연구원(대표이사 민총기)은 이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2차 연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주얼리 뿌리기능경기대전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주얼리 기술 인재 발굴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단체표준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기업의 기술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2차 연도 사업은 산업·교육 연계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 교육용 첨단 작업장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주얼리 단체표준 제정·등록 등을 추진해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교육용 첨단 작업장은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성돼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얼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기술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내달 17일까지 접수 및 설문조사 실시

군산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를 지난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선정 과정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제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제안 대상은 생활환경 개선, 안전·교통, 복지·문화, 환경 정비 등 시장 전반의 공익적 사업이다.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며, 법적 위반 사항이나 단순 민원성·행사성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시정분야는 온라인 투표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되고, 지역분야는 읍면동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

된다. 설문조사 결과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는 군산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군산시 누리집 및 주민e참여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이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군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기반 다졌다

### 아일랜드 코크·더블린 방문... 학술 교류 확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아일랜드 코크시와 더블린 등 혁명도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 추진과 학술 교류 확대를 합의하고 지난 20일 귀국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부터 기획한 세계혁명도시 간 국제 교류 사업의 하나로 코크시의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읍이 주도하는 연대를 확장하는데 힘을 쏟았다.

정읍과 아일랜드의 교류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당시 디어

드레 포드 코크시장과 도서관장을 비롯해 달시 로너건 더블린 부시장과 도서관장이 정읍을 찾았다. 이어 2024년에는 키론 맥카시 코크시장과 다니엘 브린 코크박물관장이 세계혁명도시 연대를 위해 시를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시 대표단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민족 항쟁 역사 도시인 코크시정을 방문해 필경 더니히 시장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2027년 정읍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공식 초대장을 전달하며 국제 협력망(네트워킹)을 한층 강화했다.

역사 교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결실과 정읍이 주도하는 연대를 확장하는데 힘을 쏟았다. 대표단은 다니엘 브린 코크 박물관장과 만나 지난 2024년 맺은 시립박물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두 기관은 유물과

기록물 교환 전시를 추진하고 공동 학술 연구를 증진하기로 합의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교류보를 마련했다.

더블린 일정에서는 브랜든 킬린 시립 도서관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교류 방안을 김민희 협의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켈스의 서'를 소장한 트리니티 대학교를 찾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혁명 도시 정읍의 도시 가치(브랜드 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미 있는 외교 여정이었다"며 "코크시와의 업무협약 추진과 박물관 교류 등 현장에서 도출된 소중한 성과들을 정읍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 응동우체국, 출장소로 운영

#### 민원 해결... 적극행정 성과

정읍 응동면 주민 711명의 서명으로 시작된 우체국 폐국 반대 민원을 정읍시가 전북지방우정청과 협의해 4개월 만에 해결하고 해당 시설을 출장소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감등은 지난 3월 18일 응동우체국 폐국 결정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응동면 이장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71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읍시가 빠르게 나섰다.

시는 전북지방우정청을 직접 방

문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적극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3개 기관이 타협점을 찾아 기존 우체국의 명맥을 이어가되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우체국은 내달 6일 출장소 개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여성농업인 배움의 장 마련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는 여성농업인의 농한기 맞춤형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건강한 농촌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24일부터 '2026년 여성농업인 농한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과정은 △정리수납자격증반 △AI 스마트생활반 △우리쌀요리반 등 총 3개 과정이다.

'정리수납자격증반'은 총 7회 운영되며, 체계적인 정리수납 이론과 실습을 통해 생활 및 농촌공간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AI 스마트생활반'은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키오스크, 농업정보 검색 등 최근 일상생활과 농업 전반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스마트한 생활 실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리쌀요리반'은 5회에 걸쳐 쌀, 보리, 콩 등 군산시 농특산물을 이용해 쌀계란빵, 보리점빵, 월병 등 9개의 요리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주 농촌지원과 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이 농한기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활기찬 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제9대 의회 마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전심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가결했으며, 송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4년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인안 및 기타 123건 등 67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8년 시정 마무리”

#### 미래 100년 성장동력 마련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7·8기 군산 시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퇴임에 즈음해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년, 참 긴 시간이었지만 군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시간이기도 했다"며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와 8기 군산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던 그날의 무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 앞에서 초심을 새기고 각오를 다지며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시정은 하루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자리였다"며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물론 무더위와 한파가 이어지는 날에도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고,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편은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강 시장은 군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다진 군산에는 현대차 9호원 투자 등 미래 신산업이 모여들며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을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군산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은 이제 분명하게 그려졌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자력이 있는 도시이자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이 있는 도시"라며 군산의 성장 가능성과 시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라는 직책은 내려놓지만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변화 없이 우리 시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격려하는 날은 물론 무더위와 한파가 이어지는 날에도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고,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

/군산=지송길 기자

# 부안군, 도정 정책과제 반영 선제 대응

## 정화영 부군수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방문... 주요사업 건의

부안군은 지난 23일 정화영 부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이기연 행정지원실장을 만나 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 출범을 앞두고 군의 핵심 현안사업이 도정 정책과제와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날 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군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설명했다.

특히 군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이 새 도정의 정책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를 요청했다.

또 건의사업이 향후 전북자치도 공약사업 및 핵심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 출범은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도정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공약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및 현안사업의 정책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 도비 지원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 부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독려

## 지급률 98.4% 달성 내달 3일 신청 마감

부안군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군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8.4%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지급대상자 4만 6000여명 중 4만4000여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총 116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47억원이 사용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700여명의 대상자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군은 읍·면 마을 종합행정 추진,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운영 등을 통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청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내달 3일 마감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되

는 만큼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기한 내 사용이 요구된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지급률이 98%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700여명의 군민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7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의정설명회'

## 의회운영사항 및 의원 등록 절차 등 안내

김제시의회는 24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14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0대 김제시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의정설명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회사무국장의 환영인사 및 직원 소개에 이어 의원 상호간 상견례, 시의회 일반현황, 의원등록 절차 및 향후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각오를 다졌으며, 설명회를 마친 뒤 당선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과 의원실 등 의회 청사를 순방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은 "제10대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당선인들이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0대 김제시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날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갖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는 24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14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제시의회>

# 고창군, 2분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 "조언과 행정 체험 통해 주민 참여소통 강화"

고창군이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2026년 2분기 명예읍·면장 14명을 위촉했다.

고창군은 24일 군청 2층 제2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명예읍·면장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과 군정 협력에 함께할 명예읍·면장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명예읍·면장 제도는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읍·면장은 △고창읍 박성희 △고수면 김향애 △아산면 김말순 △무장면 김연호 △공음면 김경례 △상하면 박종민 △해리면 홍종희 △삼성동면 김경도 △대산면 박상래 △심원면 김부순 △흥덕면 정인애 △성내면



고창군은 24일 군청 2층 제2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명예읍·면장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고창군>

변인수 △신림면 이동완 △부안면 이강복 등 총 14명이다.

위촉된 명예읍·면장들은 이날 해당 읍·면의 주요 업무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체험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명예읍·면장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정은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 농촌지역 에너지복지 실현

고창군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초부터 약 2년간 추진 예정인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개별 용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LPG 소형저장탱크와 매설된 공급관을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하는 현대식 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개별 LPG 용기나 등유 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약 30~40% 절감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가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라며 "연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부안군>

#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고객감사 특판행사

## 개장 5주년... 전 품목 할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개장 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 고객감사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개장 이후 꾸준히 부안로컬푸드를 이용해 준 소비자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본점과 격포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특판행사는 이전 행사와 다르게 농·축·수산물과 지역가공품, 공산품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5주년이 되는 내달 1일부터 2일까지는 3만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 중 선착순 800명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 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소비자 회원은 확보해 지역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반찬류, 우리밀 가공품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 5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이번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주)디에스시동탄 투자 본격화

전북 고창군이 (주)디에스시동탄의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대금 잔금 납부 완료에 따라 산업용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대상 부지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A10블록 부지 5만6637.1㎡(약 1만7132평) 규모다.

(주)디에스시동탄은 이곳에 총 951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금액은 토지매입 51억원, 공장건설 300억

원, 기계장비 600억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7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산업용지 분양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률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기업의 조속한 착공과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민선 8기 시정 전반 주요업무에 대한 마지막 추진상황 보고회로, 연초부터 추진해 온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민선 9기 시정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새만금 관련 확보,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가시적인 결실에 대한 부서별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민선 9기 김제 시정 전반에 대한 부서 운영 전략에 대해 부서장과 묻고 답하는 등 민선 9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했다.

정 시장은 "지난 4년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공직자가 쉬없이 달려왔다"라며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무병 미니씨감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감자 농사의 수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씨감자 선택', 지금 건강한 씨감자를 확보할 기회가 열렸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내달 10일까지 미니씨감자 분양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미니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없는 조직배양묘를 활용해 온실에서 생산된 건강한 씨감자로, 초기 생육이 안정적이고 수량 확보에 유리하다.

미니씨감자는 무게가 3~50g인 작은 씨감자로, 바로 농산물 생산용이 아닌 종자 증식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2~3회 증식을 거친 뒤 본격적인 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증식 과정을 거친 씨감자는 약 5,000평에서 최대 50,000평까지 정식이 가능해 종자 구입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자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작물로, 씨감자를 갠신하지 않으면 수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종자퇴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씨감자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향상의 핵심이며, 미니씨감자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990㎡ 이상 감자를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인당 1개 품종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 "복지정책 밑그림"

고창군이 오는 2027년부터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5회의실에서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회의에선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 연구 수행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복지 수요의 다양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수립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표적집단면접(FGI), 주민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양성평등과 건강한 먹거리 이해교육 추진

부안군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성평등과 건강한 먹거리 이해교육 행사가 지난 19일 부안 남중등학교에서 전교생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부안군지회(회장 김명옥)가 주관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양성평등 이해교육과 우리밀 먹거리 교육을 비롯해 합리적 소비 촉진 캠페인, 설문조사, 우리밀 쿠키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성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안군지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발전기금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 완주군, 농촌 삶의 질 높여 2(題)

## 완주 경천면 '다시봄' 농촌돌봄 공모 선정

완주군 경천면 '다시봄' 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부문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여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다시봄 협동조합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농촌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결식 예방과 영양 균형을 위한 '마을회관 공동 밥상', ▲농촌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활동', ▲전등 및 방충망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의 '간단 집수리 활동' 등이 구성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진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나 복지시설까지 이동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봄 협동조합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승희 경천면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이끌어 가는 돌봄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시봄 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완주군, 농촌 빈집 실태조사 순항

완주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한전의 전기 사용량 및 상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후보지를 선별하고,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빈집실태조사계획 고시 및 소유자에게 출입 통지를 고지하여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 상태, 노후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료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완주군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철거 및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해 맞춤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된 자료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어르신 복합복지 거점 문 열어

52억 투입 노인복지회관 개관 지역 연계 맞춤형 복지 제공

남원시는 24일 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주요 내빈과 노인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식이 진행됐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은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 추진된 사업으로, 1987년에 건축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립된 시설이다.

노인복지회관은 남원시 동충동 39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5,6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부지면적 1,513㎡, 연면적 958㎡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 식당, 탐비실, 창고 등을 배치했으며, 2층에는 대강당과 프로그램실 2개소, 테라스를 조성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차장 14면을 확보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남원시는 2023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했으며, 이후 구조공사와 지붕 공사, 태양광 설비 설치,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부대시설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복지시설로 운영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고산도서관 공모 선정 초등생 '찾아가는 책읽기' 운영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용진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고,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사업 선정으로 고산도서관은 용진지역아동센터 초등 고학년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이해와 자아탐색, 도서관 견학,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 과정에는 독서지도사와 작가, 사서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설공찬전' 독서감상화 전국 공모전

순창배경 김필 초소 한글소설 18명 선정상금 300만원 수여

순창군이 독서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독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2026 순창군 독서문화진흥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 세상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로,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순창을 배경으로 집필된 최초의 한글소설인 '설공찬전'을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등장인물, 이야기 내용 또는 독서 후 느낀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어린이 부문은 2014년부터 2019년 출생자, 청소년 부문은 2008년부터 2013년 출생

자, 성인 부문은 2008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우수상 2명(각 20만 원), 장려상 3명(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총 18명에게 순창군수상과 함께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또는 순창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자필 서명한 후 출판작 원본과 함께 순창군립도서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및 순창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도서관운영팀(063-650-5685)으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모범장애인 8명 표창 수여

순창군은 지난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순창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중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순창군장애인후원회와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순창읍봉사회·강정봉사회 등 지역 기관·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단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색소폰 연주와 청춘댄스팀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순창군수상, 순창군회의의장상, 순창교육지원청장상, 순창경찰서장상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감염예방체계 강화

다온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진행 산모·신생아 안전 돌봄환경 조성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3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온'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 1월 전북 동부권 최초로 개원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온'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이에 보건소 감염병관리팀과 감염

병대응팀 협력으로 시설 전반의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산후조리원 내 주요 발생 감염병인 호흡기세포포화바이러스(RSV) 및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수칙,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ATP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의 손위생 수준과 환경 표면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감염예방 실천 역량을 강화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취학 전 천 권 읽기' 독서 가약식

완주군이 취학 전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책 읽기를 다짐하는 특별한 서약의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완주군은 고운산봉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부모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천 권 가약식: 책과 약속하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천권가약식은 완주군 대표 독서문화 사업인 '취학 전 천 권 읽기'에 동참하는 어린이와 양육자, 지역사회가 함께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생활화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천 권 열매 맺기 퍼포먼스'를 통해 어린이와 양육자, 완주군이 각각의 약속을 낭독하고 천 권 읽기를 상징하는 열매 카드를 천 권



나무에 달며 독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완주를 위한 공동선서서'를 진행했다.

군의 대표 독서문화 사업인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영유아 시기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했다. 올해에도 170명의 어린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민선 9기 핵심공약 학원비 지원 '박차'

## 학원연합회 간담회서 의견 수렴 2027년 시행 목표 세부계획 마련

순창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잇따라 수렴하며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24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학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학원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는 물론 예체능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



<사진=순창군>

원까지 포함해 1인당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민선 9기 핵심 교육 복지 사업이다.

이날 참석한 학원 관계자들은 지원 방식과 운영 절차, 학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원연합회 측은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줄 것과, 학부모들

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7일에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학부모 및 학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세부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장직 인수위, 공약사업 실행 전략 점검

## 공약사업 2차 보고회 개최 재원 확보·추진 일정 집중 논의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4일, 25일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약사업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시정 비전과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분야별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인수위원회는 공약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국가재원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공정한 인사,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행정의 연속성,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기반 구축,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도시 조성, 시민 중심 행정 구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실행

력을 높이기 위한 뜨거운 의견이 제시됐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야별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보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택 인수위원장은 "시민권시대를 열어가길 민선9기 시정이 남원발전과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약사업 구체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화산면 화평지구 재해복구 완료

## 침수피해 배수펌프장 체계 개선 국비 25억 투입 방수로 신설

완주군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화산면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

화산면 화평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최대 시우량 96mm의 강우가 발생하면서 주택 24동과 상가 8동이 침수되고 배수펌프장 제어반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강우는 기존 우수관로와 저류시

설의 설계빈도인 30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배수시설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유출수가 발생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완주군은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화산면 화평리 일원에 방수로(2.0m x 2.0m) 432m를 신설하고 배수펌프장 설비를 개선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우수 배제능력이 향상되고 배수펌프장 운영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화평지구 일

원의 침수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시설의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 배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 준공으로 화산면 주민들의 오랜 침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 백련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났다.

백련마을은 지난 19일 마을회관 앞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준공을 기념하는 마을행사인 '백련마을, 고맙습니다 한마당'을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련마을의 변화는 지난 2023년 서병준 이장과 주민들이 마을을 바꾸겠다는 뜻을 모아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했다. 공모 선정 이후 마을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마을 안길과 축대·배수로 정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휴먼케어 등 역량강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련마을 입구에는 장미와 수국 등 화사한 꽃길 조성되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백련마을은 앞으로 '호국원 길목 백련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이미지를 살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관 관리와 다채로운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남면 기관사회단체協, 성금 150만원 기탁

장수군 계남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명호)는 지난 23일 계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되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계남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희식 부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 도민 체육대회 성공 염원 담은 성화대 첫 공개

진안군은 24일 공설운동장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화대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이 건립한 성화대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진안군 최초로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군민의 역량과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체전 조직위원회와 범군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진안군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성화대는 단순한 체전 시설을 넘어 진안군 최초 개최라는 역사적 의미와 군민 화합, 도전 정신을 담은 상징물로 조성됐다.

진안의 대표 자원인 마이산과 용담호를 모티브로 화반의 불꽃은 마이산 두 봉우리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해 진안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며, 청정 진안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담았다. 또한 성화대는 앞으로 체전 기간 성화를 밝히는 역할뿐 아니라 진안군의 스포츠·문화 자선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전길필 기자

무주·장수, 건강한 지역사회 '총력'

무주군, 군민 구강건강 챙긴다!

어르신 구강건강 교육

무주군은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을 공유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6개 읍면 총 30가구가 관리 대상이다. 구강검진 후 관리군과 일반군으로 분류해 일반군은 1회, 관리군은 3회 방문하고, 2회는 유선으로 진행한다.

대상 어르신들은 이를 통해 구강 세정을 비롯한 기능 운동과 틀니 관리, 칫솔질 방법 등을 교육받는다.

참어르신들은 "틀니 손질도 그렇고 칫솔질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면서 "치아가 좋아야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잘 해야겠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무주군에서는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순회 방문, 개인별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구강검진 및 교육, 스케일링, 직장인 구강건강 교실도 운영 중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금연 실천 문화 확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캠페인 실시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23일 지역주민의 금연 실천을 향상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세대초월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일 열린 장계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1차로 추진한 데 이어 장계노인복지관, 장계공용버스터미널, 장계지역 약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연성공지원금 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내용을 홍보하고,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금연 행동수칙을 소개하였으며, 현재 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홍보했다.

주민들에게 △남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력드림' △주·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금연,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등의 건강 메시지를 전달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급변하는 교육입시 선제 대응

군-임실교육지원청 주최 교육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대학입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군은 임실문화인재학당 세미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입시제도를 정확히 이

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고입·대입 준비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교육계의 주요 이슈인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이사 선발전형 등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연은 입시 전문가인 흥정의 중앙예대 대표가 맡아 최신 입시제도의 핵심 변화와 대응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맞춤형 대입 준비 전략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따른 임실 지역 학생들의 대응 방안 △지역이사 선발전형 준비방법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복잡한 입시제도 때문에 막막했는데, 지역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핵심정보를 쉽게 설명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자녀의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데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경찰서,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 설치·정비·관리 협약 체결

무주군이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와 협력해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은 무주군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행정력과 무주경찰서의 치안을 토대로 범죄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접수,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의 설치·정비·관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아동 및 아동 보호 인력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시행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의 모든 마을과 어른이 아이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라며 "무주경찰서와의 협약은 그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안심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동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각종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관내 초등학교 9곳, 어린이집 6곳 등을 지정·운영 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등의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아동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

전국판소리 인재 300명 참가

장수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판소리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소리 실력과 기량을 선보이는 전국 규모의 전통문화예술 행사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를 비롯해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 등 참가자의 연령과 실력에 따라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39개 부문에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치며,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공연에서는 판소리 심청가를 비롯해



장수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군>

단막창극,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예술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우리 소리의 깊은 맛과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에 이어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되고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경품행사도 있으며 관련 행사는 누구

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전국의 소리꾼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경연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임실군자원봉사센터, 130세대에 여름 꾸러미 전달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는 지난 22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3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눔과 후원 활동을 겨울철 집중 활동에서 연중 활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 중인 '2026 전북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 이불, 영양 삼계탕, 검은콩두유, 사골곰탕, 보리 과자, 모기약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102세대에 지원했다.

또한 지난 16일 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지원받은 꾸러미 28박스도 장애인기관 및 봉사단체를 통해 전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생활개선회 읍면별 과제교육 '호응'

도마등 실용 물품 제작 기술 익혀

무주군이 생활개선회 읍면별 과제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작된 교육은 오는 29일 까지 진행되며 읍면마다 30~50여 명의 생활개선회원이 모여 '도마', '이불패드', '발 매트', '반바지' 등 실생활에서 널리 쓰임새가 있는 물품 제작 기술을 익히고 있다.

특히 올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실용공예 및 의생활 실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과제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평소 잘 안 해본 일이라 서툴긴 해도 만드는 대로 성과물이 나오니까 보람 있다"라며 "기회가 있다면 교육에 계속 참여해서 배우는 재미도 나누고 농사일로 쌓인 피로도 풀고 싶다"고 전했다.

군은 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농업 및 생활 기술교육, 디지털 교육, 농작업 안전교육, 다양한 과제 활동과 연계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흑염소 명품화 맞춤형 교육

염소농가 경쟁력 강화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는 24일 센터 2층 농업인교육장에서 관내 흑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흑염소 사육관리 전문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흑염소 수입 물량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실군 흑염소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 위주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흑염소 유통 체계 이해 △영양관리 방법 △축사 운영 및 효율적인 사육 기술 보급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정보들이 다뤄졌다.

천소영 소장은 "최근 흑염소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흑염소 농가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교육이 효율적인 흑염소 사육관리와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장수군에 1004박스 기탁

1,170만원 상당 식료·생필품 전달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는 24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1004박스' 300개(1,170만 원 상당)를 장수군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1004박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

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다. 장수골프리조트는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앞으로도 장수군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김제 백구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가 24일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8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직접 삼계탕을 만들고 포장해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 위원들은 삼계탕을 전달하며 어르신과 취약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복지 욕구도 함께 확인했다.

이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준비한 삼계탕이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 이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이 서로 돌보는 따뜻한 백구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부안면, 단호박 농가 수확 지원 나서

고창군 부안면(면장 전기홍) 직원들이 지난 23일 부안면 노지 단호박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지 단호박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해 농가의 일손을 보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기홍 부안면장은 "바쁜 행정업무 중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 준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소방서 '베스트 화재조사관' 박성민 소방위 선정

도내 45명 화재조사관 중 가장 많은 보고서 작성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24일 소방서장실에서 2026년 상반기 '베스트 화재조사관' 선정자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화재조사관 선발 제도는 화재조사보고서의 작성 실적과 완성도를 높여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화재조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성민 소방위는 남다른 업무

열정과 철저한 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보고서를 다수 작성하여 소방서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 소방위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진행된 성과 평가에서 전북 도내 45명의 화재조사관 중 가장 많은 화재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박 소방위는 총점 51.3점을 획득하며 도내 1위를 당당히 기록했으며, 이는 도내 화재조사관 평균 점수인 18.2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박 소방위 부상으로 포상휴가 1일이 부여됐어. 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화산농협 임직원, 농촌 일손 돕기 실시

완주군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재)은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화산지역 양파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화산농협 임직원 22명은 관내 양파재배농가 현장에서 약 3만 명의 양파 운송을 도왔다. 화산농협은 매년 양파 수확 철 수매 현장으로 농산물 운송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양파 운송을 도와드리고 있다.

김종재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이 생산한 소중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운송을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촌일손 돕기를 진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정읍시·한국수자원공사, 옥정호 상류 하천 정화 활동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정읍시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옥정호 상류 유입 하천인 사직천과 추령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앞서 열린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옥정호로 직접 흘러가는 물길의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치워 원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산내면 구절초공원 주차장에 모인 참가자 80여 명은 총 5개 구역으로 흩어져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천변에 버려진 폐기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수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합동 정화 작업이 단순한 정소를 넘어 상수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유관 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발판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연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고군산군도 해양환경 지킴이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24일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기업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펼치며 탄소중립 실천과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섰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탄소중립 고군산군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교

어, ㈜김장동, ㈜서광수출포장 등 8개 기업·기관 임직원과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체 소속 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군산군도 해안가 곳곳에 밀려온 폐어구와 생활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월드휴먼브리지, 어양동에 온정 전해

익산시 어양동은 24일 '새익산 월드휴먼브리지(대표 정요셉)'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필품 꾸러미 50개(38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든든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새익산 월드휴먼브리지는 익산 영생감리교회와 함께 물품을 준비했으며, 생필품 꾸러미는 어양동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 월드휴먼브리지 관계자는 "이웃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월드휴먼브리지는 장학금 지원과 식료품·생필품 후원, 김치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광활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가구 LED 전등 교체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24일 복지기동대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노후화된 조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기존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수혜 대상 어르신은 "어두운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았는데 밝은 전등으로 바뀌어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한결 편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연 복지기동대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순미 광활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복지기동대원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6.25 1950년 6월25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던진 그날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一事一言〉



우리는 후전국으로 살고 있다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요즘 세계는 전쟁과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축구 월드컵에는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려 있다.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새로운 불안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기쁨과 비극이 한 시대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전쟁은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참전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은 원유 공급과 국제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분쟁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세계를 뒤흔든다. 그것은 바다를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대륙 전체의 지반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이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추었을 뿐, 법적으로는 종전되지 않았다.

우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다.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나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후전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민족 공동체라는 역사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마치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승전국도 깊은 상처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패전국은 오랜 세월 폐허를 복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중동의 참상이 이를 보여 준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전쟁은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오랫동안 무너뜨린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발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어렵게 쌓은 성장

의 탑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출발선 뒤편으로 밀려나는 것과 같다.

76년 전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소멸됐으며, 가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곳곳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다. 우리는 여전히 총부리를 마주한 채 전쟁을 잠시 멈추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전쟁을 뉴스로 소비하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가운데, 후전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평화가 완성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총성이 잠시 멈춘 후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역사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전쟁의 대가를 묻게 될지 모른다.



바이오진흥원 비위 악순환, 방만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내부 비위 의혹과 일탈 행위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위와 잡음이 여짜다 한 번 발생하는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 내부의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에서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대응 공식이 있다.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진흥원의 행보는 늘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 사건이 불거지면 적당히 꼬리를 자르거나, '숨방방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내부 고발이나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자체 감사 시스템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고, 조직 내부는 견제와 균형 대신 온정주의와 타성에 젖어 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정화 능력 상실이야말로 비위의 악순환을 키운 가장 큰 자양분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화살을 단지 바이오진흥원이라는 한 기관의 내부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민의 혈세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북도청 산하의 대표적인 공공 출연기관이다. 자체적인 비즈니스로 수익을 창출해 스스로 생존하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연기관은 예산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전북자치도가 대주는 구조다. 즉, 이들이 쓰는 서류 한 장, 집행하는 사업비 1원까지 모두 도민들이 떠 올려 낸 세금에서 나온다.

결국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출연기관에서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전북도청의 방만 행정과 관리·감독 소홀이 낳은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매년 이들 기관을 평가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끊임없이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전북도의 감시 체계가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방관 행정'을 펼쳐왔음을 방증한다. 자금을 줄출 대주면서도 정작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도청의 나태함이 지금의 사태를 키운 몸통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을 고도

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임중한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설립된 조직이다. 도민들이 이 기관에 바라는 것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날카로운 혁신과 성과이지, 내부 파벌 싸움이나 비위 뉴스 같은 구태가 아니다. 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도청 전체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기업들과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적당한 인적 쇄신이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감사로 멈춰 서서는 안 된다. 전북도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산하기관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물론이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도청 내부의 책임자 라인까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돈만 쥐여주고 감시는 뒷전인 방만 행정을 끝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바이오진흥원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이야말로 칼을 빼 들고 공공기관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는지, 도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타임스**  
정확한 뉴스, 빠른 소식

사설

민선 9기 출범도 전에 난무하는 인사 하마평  
도민은 자리가 아닌 변화를 원한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인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도청 실·국장부터 산하기관장, 출연기관 임원, 각종 위원회와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 자리가 없을 정도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도정의 밑그림조차 완성되기 전에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들이 민선 9기에 기대하는 것은 자리 이동이 아니라 전북의 변화다. 장기 집권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만금과 첨단산업 육성의 돌과구를 마련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새 도정의 우선 과제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정책과 비전보다 인사에만 시선이 집중되면서 마치 선거 승리에 따른 논공행상이 먼저 시작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는 곧 정책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도정의 성과가 갈린다. 따라서 인사는 철저히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공로가 인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세력이나 측근 중심의 인사가 반복된다면 도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은 AI·반도체, 재생에너지, 농생명산업, 새만금 개발 등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근거 없는 하마평이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인물에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조직 개편설까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는 업무보다 눈치 보기에 몰릴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이원택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취임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평가받고 있다. 도민들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보다 어떤 원칙으로 인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새 도정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논공행상이라는 낡은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첫 단추는 인사다. 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의 모든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지금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의시

6월 / 이 외 수

바람부는 날 은백양나무 숲으로 가면  
청명한 날에도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저무는 서쪽 하늘 걸음마다  
주름살이 깊어가는 지천명(知天命)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지요  
오래 전부터 그대에게 염서를 씌니다  
그러나 주소를 몰라 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열어도  
온 천지에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한평생 그리움은 불치병입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국국 맥스 282-9604	편집국 맥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6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심민 임실군수 민선 12년 성과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2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뤘으며,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관광·정주·농업·복지·교육·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무소속 3선으로 임실군의 역사를 새로 쓴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12년간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군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지역의 기반을 하나씩 다져 왔다.

그 결과 임실은 옥정호 관광시대, 임실 N치즈 브랜드 전국화, 체류형 관광·정주 기반 확대, 맞춤형 복지 강화, 미래농업 전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변화의 흐름을 현실로 바꿔 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심 민 임실군수의 12년을 통해, 임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관광·농업·복지·교육·산업 전 분야 체질개선 “천만관광 명품도시” 현실로!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싶은 임실’ 실현  
심 민 군정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정주여건 개선이다.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넘어 군민과 청년이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 병행됐다. 임실군은 민선 8기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했다.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착공됐고, 임실을 120세대 공공임대아파트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영화관·목욕탕·주민복지시설 등이 들어서 주민 생활서비스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도 강화됐다. 국도 30호선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 국지도 49호선 선형 개량, 임실역 KTX정차 추진 등은 지역의 이동권을 넓히고 대외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핵심과제였다.

▲ 희망농업과 미래농업의 동시 추진  
임실은 전통적으로 농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2년 동안 임실의 농업은 단순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했다. 우선 현장중심의 농정이 강화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단 운영, 농민 공익수당 지급, 청년 농업인 영농장학 지원 등은 농가의 실질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해 2022년 54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자는 현재 356명까지 늘어나 안정적인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을 틔웠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체질 개선  
임실을 상징하는 대표산업은 단연 임실N치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를 지역 브랜드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임실N치즈는 1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임실치즈산업은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성장했다. 임실치즈농협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임실치즈엑스포연구소, 임실엔지즈클러스터 등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며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판로확보를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저지종 젖소 도입, 숙성치

즈·무가당 요거트 등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 직영 판매장 확대, 전국 판촉행사와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람 중심 행정  
심 민 군수의 군정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과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했다. 고령화가 빠른 농촌 현실에 맞춰 노인 일자리 확대,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정착됐다.

특히,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의미가 크다. 방문의료,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군민이 익숙한 집과 마을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임실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수·금암지구 풍수해사업, 관촌 자연재해 정비사업 등은 상습 침수와 재해위험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하절기 방역소독,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국가지점번호 관 일제조사, 현장 안전보건교육 등 생활 안전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다.

▲ 교육·문화·공동체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임실구축  
임실의 마지막 변화는 교육과 문화, 공동체의 회복이다. 봉황인재학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사업, 학교복합시설 추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임실”의 기반을 닦았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임실 문예답터, 생활체육관·야구장·반다비체육센터·시름장·파크골프장 등 생활문화 인프라가 확충됐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역 정체성도 더욱 선명해졌다. 필봉농악, 오수의견실화·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 같은 지역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며 임실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더 뚜렷해졌다. 이는 관광과 교육, 지역경제를 잇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땀은맛〉 심 민 임실군수  
심 민 군수의 민선 6기, 7기, 8기 12년은 임실군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전국에서 찾는 천만관광지가 되었고, 임실N치즈는 대표브랜드가 됐으며, 농

업은 미래형산업으로 전환했다. 정주기반은 강화됐고 복지와 안전망은 더 촘촘해졌으며 교육과 문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됐다.

무엇보다 임실은 이제 낙후를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이 됐다.

심 민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처음 임실군수로 취임하면서 깨달은 군수, 일 잘하는 군수, 임기를 마치는 군수가 되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했다”며 “민선 6기, 7기, 8

기 12년은 임실이 어떻게 달라졌고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지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덧 민선 6기를 아쉽게 시작하게 됐는데, 1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달려왔지만 그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못다 이룬 것들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 8기 3선을 시작하면서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을 약속했는데,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

원 등 옥정호 관광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옥정호는 물론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관광벨트 연계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군수는 “이들 사업을 비롯하여 그동안 특심 있게 추진해 왔던 1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임실이 더 이상 소멸지역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제14회

### 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자연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응원합니다



- 참가자격 진북특별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내용
- 공모 부문 그림 & 만화
- 작품크기 8절지 크기 (B4 용지)

- 공모기간 2026년6월8일 ~2026년 7월 9일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지 우) 54990 진주시 덕진구 태진로77,5층
- 수상지 발표 2026년 7월13일 (월요일)
- 수상지 시상 2026년 9월 4일 (금요일)

- 대상 3명 진북도 교육감상(1명) 진북도의회장상(1명) 진북도지사상 (1명)
- 최우수상 4명 진주시장상(2명) 진주시의회장상(2명)
- 우수상 20명 (제) 아시아문화 교류재단 진북지회장상(20명)
- 장려상 50명 (주) 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50명)
- 특별상 3명 국회의원 (3명)

주최, 주관 - (제)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 전북타임스신문